

보성 조성농공단지 공장유치로 활력

한국식품 수출회사 케이-밥과 투자협약 체결 19일 공기정화기 생산회사 인우당 준공식도

보성군이 10일 보성군청 소회의실에서 케이-밥과 조성농공단지 내 공장 설립 및 지역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식품 수출전문 회사인 케이-밥은 보성군 조성 농공단지 입주, 앞으로 보성군 친환경 쌀을 이용해 즉석밥을 생산할 계획이다.

2020년 완공을 목표로 200억원의 자금을 투자해 HACCP 시설을 갖춘 생산라인과 연관 식품 생산 설비를 구축한다.

보성군은 이번 케이-밥 유치로 국내는 물론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전 세계에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과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 또한 기대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케이-밥 유치로 약 50여 개의 지역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간 800~900톤 규모의 쌀을 소비하는 케이-밥과 이번 협약을 통해 보성군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확실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비수기 없는 보성경제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8년 넘게 흉물로 방치돼 있던 조성농공단지 공장 부지에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게 돼 매우 뜻깊다”면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는 19일에는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공기 산업 회사 ㈜인우당이 조성농공단지에서 준공식을 갖고 보성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인



보성군은 10일 소회의실에서 케이-밥과 지역 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보성군 제공

우당은 공기정화기 생산 업체로 50억원의 자금을 투자해 본격적인 생산 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백종두 기자



광양시보건소는 최근 어린이들의 구강질환 예방을 위해 구강 보건교육 및 불소도포 사업을 시작했다. /광양시 제공

광양보건소 어린이 구강질환 예방

26개교 7천명 대상

광양시보건소가 구강질환 발생에 취약한 병설유치원·초등학교 26개교 7,000여 명을 대상으로 구강 보건교육 및 불소도포 사업을 시작했다.

불소도포는 치아우식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의 어린이 치아 표면에 불소막을 형성하고, 세균의 효소작용을 억제해 치아 표면을 단단하게 하는

구강 예방사업이다.

의료비 절감효과와 어린이 스스로 건강 관리의 습관을 기르는 좋은 기회로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광양시보건소 이향 건강증진팀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예방사업을 펼쳐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구강 건강관리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정상명 기자



순천 청춘창고 청년 사장들이 최근 참사랑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어르신들 점심을 대접했다. /순천시 제공

순천 청춘창고 청년 사장들 사랑의 점심 대접

순천 ‘청춘창고’의 청년 사장들이 최근 참사랑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손수 준비한 음식으로 점심 식사를 대접했다.

문어리 이성수 대표는 “순천시의 지원과 많은 방문객들께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함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다 떠오른 것이 봉사활동이었다”며 “직접해보니 역시 좋다”고 말했다. 메인 셰프 역할을 자처한 하오츠 류

시준 대표 또한 “드시기 편하도록 면 요리를 준비했다. 맛있게 드셔서서 감사하고 뿌듯하다”며 웃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6명의 청년 사장들은 “이번 봉사활동으로 오히려 더 큰 기쁨을 얻었다”고 입을 모았다.

청춘창고의 임점 청년들은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실천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박경식 기자

고흥 평화당 군수-민주당 위원장 행사장서 충돌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 성과 설명 중 고성 눈살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 성과를 놓고 민주당 소속 군수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면민의 날 행사장에서 언성을 높여 빈축을 사고 있다.

주민 화합의 장이 돼야 할 면민의 날 행사가 정치 싸움장으로 변질됐다.

10일 고흥 지역정가에 따르면 지난 7일 풍양초등학교에서 열린 제45회 풍양면민의 날 화합 한마당에서 송기근

군수가 스마트 팜 유치 성과에 대해 설명하는 중 김승남 위원장이 언성을 높이며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이날 송기근은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한 덕분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유치할 수 있었다”며 “이 사업은 정당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하자 김 위원장은 “짧게 좀 해요. 이 양반 아 짧게 좀 해. 누가 언제 정당하고 관계

있다고 했어”라며 반말과 고성을 질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송기근과 김 위원장이 1,500여명의 면민과 향우가 모인 행사장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언성을 높이자 정당 관계자들까지 가세해 행사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날 충돌은 평화당 소속 송기근과 민주당 소속 김 위원장의 감점싸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흥군은 당적이 다른 김 위원장을

축사와 내빈소개에서 생략하고 좌석 또한 귀빈석 맨 뒷줄에 배정했다.

특히 이날 행사가 열린 풍양면은 김 위원장의 고향으로 군의 홀대 인해 쌓였던 감정이 폭발했다는 전언이다.

반면 고흥군은 축사와 좌석 순서는 해당 면에서 결정하고 좌석배치는 2년 전 행사와 동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고흥만 간헐적 일일 30ha 규모로 총 사업비 1,100억 원을 투자,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청년농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박선욱 기자

“여수교육 획기적 변화 위해 노력 학생·지원·현장 중심 3원칙 추진”

취임 2개월 맞은 여수교육지원청 김용대 교육장

“남도교육의 1번지, 여수에서 교육장으로 근무하게 돼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동안 전남도교육청에서의 인사업무와 7년간의 교장직 경험, 교직의 마지막 봉사라는 생각으로 여수 지역교육을 위해 열정을 쏟을 예정입니다.”

취임 2개월째 맞은 김용대 여수교육장은 10일 “인근 순천은 역대 교육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는다”며 “여수야말로 남도 교육의 1번지이며 진정성을 가진 우수한 교육자 기질을 가진 교육자가 많다. 여수교육의 획기적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장은 학생 중심, 지원 중심, 현장 중심의 3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교육행정을 펴 나가기로 했다.

그는 “교육청은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기에 두말할 것 없이 학생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학교는 자율적이면 서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아낌없이 펼칠 것”이라며 “모든 문제와 답은 현장에 있듯이 항상 현장을 방문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을 펼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에 대한 대책도 세울 계획이다.

김 교육장은 “여수지역 전체 학교가 두드림학교와 디딤돌 학습캠프, 지자체 지원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 등 학력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해 기초 기본 학력 향상에 매



진토록 할 것”이라며 “특히 부진한 학생들을 위해 꿈길사이트와 학습클리닉센터 등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명문 여수교육의 기틀을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책에 대해서는 교원들이 열정을 갖고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직원 후생복지 지원 확대, 현재 70여개에서 운영중인 전문학습 공동체 모임을 100개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교원연수 예산 증액, 교원들이 희망하는 연수과정 개설, 해당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통한 연구하고 공부하는 교사상 정립 등을 공약했다.

김 교육장은 “교육이란 모듬지기 모든 사람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함께 만드는 여수교육공동체를 힘을 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학생을 내 자식처럼 생각하는 진정을 갖는다면 분명 여수가 남도 교육의 1번지로 부상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곽재영 기자

클릭! 고흥 소식



보성 북부농협 농기계 엔진오일 무상교환

보성 북부농협은 최근 LS엔트론, 대동공업, 국제종합기계, 동양농기계 등과 함께 트랙터 소유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기계 엔진오일 무상교환 지원 사업을 펼쳤다.

농기계소유 농가 400여 명 160대를 대상으로한 올해 트랙터 엔진오일 교환사업은 조합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동부취재본부=이주연 기자



고흥 관내 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고흥군은 최근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부모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및 입학 축하금 1억 6,463만원을 지급했다.

교복비와 입학축하금 지원사업은 5개교 330여 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아직 하복 구입이 완료되지 않은 농동고에 대해서도 5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진종연 기자



구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구례군은 11일부터 오는 10월 30일까지 8개월간 수확기 농작물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주간 14명, 야간 6명,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군은 피해방지단원에게 우선활동 지역을 지정해 중점적으로 포획을 실시한다. /동부취재본부=김진석 기자